



경 찰 청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청원경찰 보수산정시 경력 인정 관련, 청원경찰 배치사업장 지도·감독간 강조사항 하달

1. 관련근거

가. 「청원경찰법」 제9조의3(감독)

나. 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제11조(보수산정시 경력 인정 등) 제1항

다.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-1328(2022.7.27.) 제도개선 권고(국민 생활 속 불공정 차별요인 개선)

2. 최근 △국민신문고 △전화 등을 통해 국가·지자체가 아닌 곳에서 △경비 △수위 등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근무한 사람이 국가·지자체의 청원경찰로 신규 채용된 경우 보수산정시 경력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.

가. 청원경찰 보수산정시 경력인정 기준 법령해석

- 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제11조 제1항의 보수산정시 경력인정 기준은 청원경찰로 임용되기 이전의 동일 또는 유사한 경력을 청원경찰로서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,
 - 청원경찰 배치 사업장에서 보수산정시 경력인정 기준을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, 취업규칙 또는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△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△군 복무경력△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△국가지자체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적용하는 것임.

관련 규정

< 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>

제11조(보수산정시의 경력인정 등)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(算入)하여야 한다.

1.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
2.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
3. 수위·경비원·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
4.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(常勤)으로 근무한 경력

나. 주요 민원사례

- 국가기관의 청원경찰로 신규 채용된 “갑”(지자체-미화원 5년 근무)과 “을”(국립대학교-경비원 5년 근무), 해당 국가기관에 별도의 경력 산정에 대한 취업규칙이 없거나, “청원경찰법령”을 준용하는 경우 “갑”의 미화원 5년 근무 경력은 청원경찰 보수산정 시 모두 인정받고 “을”의 경력은 인정받지 못함
- 국가00공단에서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업무를 하다 정부기관의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으나, 청원경찰의 직무와 유사·동일한 국가00공단의 방호 경력을 호봉산입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

3. 위와 관련, 시·도경찰청(경찰서)에서는 청원경찰 배치시설 지도·점검 시, 청원경찰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해, 신규 임용된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청원경찰로 임용되기 이전에 타 기관에서 △경비 △수위 등 청원경찰과 유사한 직무에 근무했던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적극 반영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바랍니다. 끝.

경 찰 청 장

수신자 서울특별시경찰청장(경비과장), 부산광역시경찰청장(경비과장), 대구광역시경찰청장(경비과장), 인천광역시경찰청장(경비과장), 광주광역시경찰청장(경비과장), 대전광역시경찰청장(경비과장), 울산광역시경찰청장(경비과장),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(공공안전과장), 경기도남부경찰청장(경비과장), 경기도북부경찰청장(경비과장), 강원도경찰청장(경비과장), 충청북도경찰청장(경비과장), 충청남도경찰청장(경비과장), 전라북도경찰청장(경비과장), 전라남도경찰청장(경비과장), 경상북도경찰청장(경비과장), 경상남도경찰청장(경비과장),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(경비교통과장)

경장

경정

총경

전결 2022. 11. 1.

협조자

시행 위기관리센터-6024

접수

우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, 경찰청 (미근동)

/ <http://www.police.go.kr>

전화번호 02-3150-1226 팩스번호 02-3150-2261 / polrotc11449@police.go.kr / 대국민 공개

실력있고 당당한 경찰,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